

지역 매 아리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주민공감 인권 · 피해자 홍보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축제가 한창인 고인돌공원을 비롯 다중이용장소를 찾아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범죄피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범죄피해 자지원제도에 대해 1:1 홍보하는 등 범죄 피해자 인권과 보호제도 캠페인을 펼쳐 인식제고 및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 김경아 순경은 "보호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고 피해자들을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피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홍보뿐만 아니라 피해자 발굴 및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더불어 상담, 경제적 지원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쏟고 있다.

김성재 서장은 "피해자보호지원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는 끝없는 인 인 초기단계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시 지역공동체추진

위원회 위촉식 · 회의 가져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공동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3회 지역공동체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회의를 개최했다.

정읍시 지역공동체추진위원회는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직인 정읍시청 3명(복지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체과장)과 마을만들기 전문가,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반기마다 정기 회의를 갖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사·평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호선으로 김용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통해 정읍시 지역공동체 만들기 5개년 기본계획과 공동체활성화센터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결정했다.

유 시장은 "이번 지역공동체추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마을공동체 사업의 뿌리와 줄기가 정착돼 알찬 열매가 열리도록 위원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함께 잘사는 상생고창 만든다

유기상 군수, 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발품행정

유기상 고창군수가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31일 흥덕농공단지에 위치한 현대종합금속(주) 등 입주기업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유 군수는 이날 김우열 공장장과 현대종합금속의 발전방향, 애로사항 등에 대한 면담을 나눈 후 1공장, 2공장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직접 시찰하고 근로자와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쳤다.

현대종합금속(주)는 흥덕농공단지 151,952㎡의 부지에 2009년 1공장, 2012년에 2공장을 설립하고 용접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108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사 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유 군수는 이후 흥덕농공단지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난 31일 흥덕농공단지에 위치한 현대종합금속(주) 등 입주 기업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입주기업과 지역 기업인 협의회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갖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유기상 군수는 "기업이 발전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창군

발전도 가능할 것이므로 '함께 살리고 잘사는 상생경제'에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군정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보행자 중심 대각선 횡단보도 운영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상동 현대3차아파트 앞 사거리와 수성동 성립프라자 앞 사거리 2개소에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

하고 오늘부터 운영에 나선다. 보행 신호는 전 구간 동시 점등으로, 점등 시 전 구간에 차량 우회전이 금지되므로 운전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사거리 등의 교차로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 외에 대각선 모양으로 가로질러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목적지까지 한 번에 건너 갈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편의와 안전에 효율적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구간 시민들의 보행신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센터 게시판과 이·통장 회의를 통해 홍보에 주력해왔고, 예고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운영한다. 또한 대각선 횡단보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도 함께 설치하여 교통약자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방사선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곳'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센터 준공... 전자선가속기 포함 첨단시설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소장 정병영, 이하 방사연)는 전자선가속기와 기초부터 실증연구까지 가능한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센터(이하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31일 준공식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실증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2014년부터 4년에 걸쳐 총190억원(국비 13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3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실증센터는 연면적 3,864㎡(지상 2층)의 규모에 10MeV와 2.5MeV 전자선가속기, 자동화설

비, 각종 제작설 및 성능시험실 등을 포함해 약 20여종의 첨단 연구장비를 구비했다. 이를 이용해 실증센터에서는 방사선을 활용한 소재산업의 핵심 연구 분야인 △산업용 첨단 소재 △의료·생명공학 산업소재 △친환경소재 △항공우주·해양·국방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실증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2014년부터 4년에 걸쳐 총190억원(국비 13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3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특히 이곳에 설치된 10MeV 가속기는 30mm 두께의 물질까지 투과할 수 있어, 대형 복합 소재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7.5mm 두

께까지 투과할 수 있는 2.5MeV 가속기는 시트형, 섬유형 복합소재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어, 산업계가 요구하는 각각의 소재 특성에 맞춰 다양한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방사연 관계자에 따르면 "실증센터를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에 개방하여 산·학·연이 함께 방사선 산업소재를 연구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이온가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등의 실증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열린 어린이집 7개소 지정

각종 포상 · 보조교사 우선지원

부안군은 지자체형 열린 어린이집 7개소를 지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열린 어린이집은 시설개방과 부모참여가 확대된 어린이집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선정 항목으로는 시설 및 어린이집의 정보공개 수준을 보는 '개방성', 부모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참여성', 부모참여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부모참여활동의 균형적 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을 보는 '다양성', 기타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충족 하는지 5가지로 구분해 평가한다.

또래, 자연물, 하늘숲, 큰별, 피터팬 어린이집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재지정 됐으며 비타민, 언덕 위 어린

이집은 신규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늘부터 내년도 10월 31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각종 포상과 보조교사 우선지원, 모넨터링 일정기간 제외, 민간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시 가점 부여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향후 지자체형 열린 어린이집 중 전 북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12월에 우수형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년도 우수형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또래 어린이집이 재지정에 도전한다.

부안군 김형원 주민행복지원실장은 "열린 어린이집과 같이 개방적이고 부모참여가 확대된 어린이집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가 지난 30일 오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임산물 6차산업 단지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운영 중간 보고회를 갖고 기본 구상을 결정했다.

정읍시, '임산물 6차산업 단지조성' 중간보고회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30일 오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임산물 6차산업 단지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운영 중간 보고회를 갖고 기본 구상을 결정했다.

유 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김인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 14명과 유관기관 전문가인 전북대학교 강학모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운영관계자의 기본구상 계획안과 세부 사업별 기본계획안을 청취한 후 질의를 통해 세부사업안을 재검토했으며, 지난 1차 보고회시 논의 된 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2020년까지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정읍시농경문화체험관 일원에 '차(茶)'를 주제로 하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단지에는 차향문화관·차향센터·차향기 등

을 조성하고, 정읍에서 생산되는 차와 관련한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체험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주변의 국민여객평장을 비롯한 시립박물관, 내장산 워터파크 등을 찾는 방문객에게 특화된 차향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체험시설에는 가족단위 방문객과 학교 등의 단체를 위해 전문체험강사를 두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운영은 임산물 6차산업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이며, 11월 중에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2019년 4월까지 실시계획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명주',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